

#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도권 소비자 눈길 사로잡아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전북자치도, 수원 메가쇼서 1억2834만원 판매 성과... 판로 확대 청신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도권 소비시장을 겨냥한 판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 메가쇼 시즌 1'에 참가해 도내 농수산물식품 기업의 수도권 진출을 위한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전통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 18개 기업이 참여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와 시식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현장 판매액 1억2834만원의 성과를 거뒀다.

전북공동관은 '전북미식 삼시세끼'를 주제로 꾸며졌다. '갓 만든 신선함', '살아 숨 쉬는 전북의 맛'이라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 메가쇼 시즌 1'에 참가해 도내 농수산물식품 기업의 수도권 진출을 위한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

슬로건 아래 신선한 원재료와 지역 특색을 강조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강화해 제품의 품질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통식품 분야에서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참가한 8개 기업이 총 5143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익산

농협 떡볶이간의 생크림 찹쌀떡, 남양에이치앤비의 약과, 밥강도의 냉동수산물 등이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전북 전통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창업투자 지원사업으로 참가한 10개 기업은 총 7691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산엘로우푸드의 박대와 오징어, 이고장식품의 건편식 죽류 및 국거리, 식도라푸드의 새우장과 건바스밀키트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은 "이번 메가쇼는 전북 농수산물식품의 수도권 시장 확장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판로 지원과 마케팅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력 무주지사는 지난 29일 무주군에서 열린 '2026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 주민과 함께 땀 소통 마라톤

### 한국전력 무주지사,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 참가

한국전력 무주지사가 지역 주민과 함께 달리며 상생과 소통의 행보를 이어갔다. 한국전력 무주지사(지사장 정원석, 노조위원장 한용수)는 지난 29일 무주군에서 열린 '2026 무주반딧불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대회에서 무주지사 임직원들은 참가자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기념품을 배부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대회 분위기를 북돋웠다.

특히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함께 달리는 상생의 길, 함께 여는 에너지의 미래라는 슬로건이 적힌 등번호를 착용한 채 주민들과 함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직원들은 주민들과 나란히 달리며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국가 기간망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를 통해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오상근 기자

##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AI·디지털 전환 지원

### 중기부,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3월 31일부터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유형은 신규와 고도화로 나뉜다. 신규 부문에서는 15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고도화 부문에서는 25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이나 타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과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고도화 과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공모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신청, 기술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전문가 사전 컨설팅도 제공된다. 희망 기업은 지정 수행기관에 전자우편으로 컨설팅 지

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종교 화물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트럭 분류 체계와 매출 등록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결과, 매출액이 180% 증가하고 월 이용자 수가 11.2%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고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 국민연금공단,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실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발전에 기여할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제14회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모두가 누리는 연금, 당신의 연구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마련됐다. 2013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참여 인원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정책 △연금개혁 등 4개 분야로, 국민연금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국민연금연구원 누리집 내 '연구과제 제안'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실무진 심사와 2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2차 심사에서는 연구영역과의 부합성, 정부정책 및 학술적 기여도, 시의성 및 시급성, 독창성 및 창의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우수작은 9월 28일 국민연금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전기안전공사, 집중안전점검 성과 '대통령 단체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부문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등 각종 안전정책을 추진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진 정부 최고 수준의 포상이다.

공사는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이후 전기설비와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

을 실시해 전기화재와 감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왔다.

특히 폭염과 장마 등 계절적 위험요인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취약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변지역 안전점검, 노후 전기설비 시설 개선, 맞춤형 전기안전 컨설팅 등 전기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안전 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완주·동북권 선도기업 협의회 가져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선도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역 대표자 협의회를 열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제2회 선도기업 지역 대표자 협의회(완주·무주·진안·장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지역 선도기업 대표와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권역별 협의회를 이끌 신규 부회장을 선출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네트워크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부회장 선출을 통해 권역 내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주도할 리더십을 구축했다. 이어 2026년도 지역별 교류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시·군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대외 경제



불확실성도 주요 의제로 다루졌다. 기업들은 글로벌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수출 물류망 불안정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전북TP는 이에 따른 기업별 리스크 관리 지원 방안과 긴급 대응 체계 가동 계획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2026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주요 고도화 전략과 세부 지원 프로그램도 공유됐다. 참석 기업들은 산업 정보와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며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